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황수영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sooyhwang@naver.com

대학원명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t Duke University	(국가) 미국
기 간	2015. 1월 - 2015. 12월	[귀국일:2015년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6년 3월 14일

신 청 인 : 황수영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Duke University는 미국 동남부 North Carolina 주 Durham에 위치한 대학으로 국제개발 및 공공정책을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은 미국에서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근처 인근의 3개 도시는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연구시설들이 밀집해있어 미국에서 이 지역을 Research Triangle이라고 부른다. 3대 도시를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되고 각각 도시에는 연구중심의 명문대학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Durham에는 Duke university, Chapel Hill에는 UNC-Chapel Hill, Raleigh에는 NC State대학이 각각 위치해 있어 생명의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질 높은 연구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곳은 기후도 온화하여 가족들이 살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겨울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눈이 제법 오고 있다. 실제로 2015년 2월에는 30센티 폭설이 내려서 며칠간 학교수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전반적인 기온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교적 생활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따라서 초기정착 등 학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리적으로도 워싱턴 DC 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여서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하여 DC관광도 자주 다녀올 수 있다. 북쪽으로는 워싱턴 DC가 차로 4시간, 뉴욕까지는 8시간 정도 소요되며 암트랙이라는 기차도 잘 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교민이 미국에서 LA와 뉴욕에 이어 3번째로 많이 사는 아틀란타(15만명)도 차로 6시간 정도여서 비교적 쉽게 다녀올 수 있다. 아틀란타 또는 워싱턴에는 한국식 대형 슈퍼마켓(H마트, 롯데마트 등)이 있어 한국제품을 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H마트의 경우 Raleigh(보다 정확히는 Cary지역)에 곧 신규 오픈을 한다고 하니 생활하는데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Duke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과정(Ma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은 대외원조 및 국제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의 경우 실무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강화하는데 최고의 교육과정이다. 교수님들 대부분이 World Bank, IMF 등 글로벌 개발기관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분들이라서 실무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 EDCF나 KOICA에서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이 과정이 이론적 배경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KDI 개발정책 석사과정도 커리큘럼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Duke 대학의 MIDP과정은 이를 심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정책이나 글로벌 이슈를 선택하여 심도있는 정책분석 후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써야 한다. 분석의 틀은 정해져 있으나 각자의 역량에 따라 그리고 지도교수의 조언 등을 잘 따라간다면 수준 높은 논문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우선 첫학기 시작전 1 월초순에 영어테스트를 한다. 스피킹과 라이팅을 보는데 스피킹은 토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라이팅은 1 장 정도 글을 읽은 후 나만의 언어로 의견을 쓰는 형식이다. 2015 년은 소득불균형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러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소득수준이 학생들의 심리 및 협력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읽은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후 나는 이런 생각이다 왜냐하면 첫째..둘째...등등으로 전개하면 무리 없을 것 같다. 특히 Duke MIDP 과정은 income gap 등에 관심이 많으니까 Thomas Piketty 의 '21 세기 자본'을 언급하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다루면서 1 장 정도 쓰면 된다. 영어시험은 가능하면 통과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걸 듣게 되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주변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음. 가을학기 시작전에는(8 월 3 째주) 통계학 시험을 보는데 2015 년에는 크게 4 문제 나왔으며 이중 3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확률, 가설검증, 회귀식 문제 등이었고, 큰 문제 안에 작은 문제들이 4-5 개 정도 있다. 통과하면 가을학기 통계학 과목 면제, 탈락하면 수업 들어야 하는데 수업은 숙제도 많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강신청 관련해서는 KDI 도 그렇지만 여기도 어떤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 한 학기 삶의 질이 달라진다. 다음은 직접 학기별로 들었던 과목들이다

(봄학기)

Applied Econ (Richard hemming) : 영국인 교수님, 강의식, 부담없음

Macro Econ (Richard Hemming) : 강의식, 크게 부담없음

Service Delivery (Joel Rosch) : 강의식, 전혀부담 없음(1 달에 한번 리포트 제출)

Fiscal Decentralization (Roy Kelly) : 강의식, 무난함

Legal Analysis (Catherine Admay) : 개발관련 인권문제 등 다룸

Master Project (Lethem 등 3 분 공동강의, 4 회수업, 1 학점): 졸업논문 안내수업

(여름학기)

PARM(Project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 주로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1 달 고박 수업하고 6 학점(두과목 상당), 중간에 워싱턴 DC 2 박 3 일 field trip)

(가을학기)

Policy analysis(Natalia Mitrovitskaya): 의무과목, 석사논문 분석틀을 공부

Foreign Aid (Phyllis Pomarantz) : aid 과목

MP 논문: 수업은 없고 석사논문 작성(2 학점)

(총평)

수업은 KDI 에서 배운 것들과 연결되고 큰 부담은 없어 보이나, 졸업논문이 다소 부담이 된다(보통 50 페이지 논문). 논문주제를 정하고 prospectus 를 10 여장 작성하여 3 분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 OK 받아야 논문 작성 가능. 논문은 정해진 틀에 따라 문제점 있는 정책을 하나 골라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 KDI 수업을 열심히 배웠다면 많은 도움이 되며 큰 무리 없이 과정 이수 가능함.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보통은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는 편이며 주변은 자연과 어우러져 공해 없는 맑은 공기 속에서 편안한 생활 가능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군이 좋은 Chapil Hill지역에 거주하며 비지팅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곳에 거주한다. 독신으로 오는 경우 Fuqua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Alden Place 아파트가 편리함 (학교까지 차로 10분 정도).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인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다. 1년 정도 거주하는 것은 아파트가 편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밥을 해먹는 편이고 가끔 외식을 할 경우 근처 쇼핑센터나 한국음식점 등으로 나가서 사먹어야 한다. 한식의 경우 김치찌개가 거의 15불 정도하니 비싼 가격은 감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식, 일식, 동남아음식, 남미음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근처 쇼핑센터 등에서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다. 현지에 도착하면 이미 연수중인 분들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음식점 평가 등을 들은 후 찾아가면 더욱 좋으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인근 한인교회에 출석하여 기존 한인들과 교제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미국에서의 여가활동은 주로 골프, 여행 등에 집중된다. 골프는 한국과 달리 매우 좋은 환경에서 연습 및 라운딩 할 수 있고 특히 Duke골프장은 학교와 인접해 있어 수업 종료 후 연습장에서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유료 강습을 신청하여 배울 수도 있다. (듀크 골프장은 PGA투어 경기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명망있는 골프코스로 누구나 플레이 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좋은 골프장이다. 인근에 힐란데일 대중골프장도 있어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라운딩할 수 있다). 여행은 방학을 이용하여 인근 관광지(outer banks, smoky mountain 등), 또는 주요 도시(DC, 뉴욕, 아틀란타, 올랜도 등)를 자가용 또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다녀올 수 있다.

6. 전반적인 평가/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국에서의 2년 차 연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수기간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에 찌든 심신을 위로하고 학문적 열망을 불태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어느 대학을 선택하든 다른 개도국 공무원이나 현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한국의 이미지 형성에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업을 주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국학생의 우수함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